

신당-민주 오늘 합당 선언

당명 통합민주당, 지분은 5대5
여론조사 통해 후보 단일화키로
분당 4년만에 통합...공동대표 오충일·박상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 및 당 대 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합의하고 이르면 12일 통합 합의와 함께 당 대 통합선언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단계 '일사 통합'인 대통합신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및 정당 통합 작업이 이번 주 내에 마무리되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와의 2단계 통합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11일 대통합신당과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당은 지난 주말 물밑 접촉을 갖고 후보단일화 및 당 대 통합에 따른 5개항에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양 당은 우선 통합되는 정당의 당명은 '통합민주당'으로 하고, 지분 문제로 '당 대 당' 통합이라는 점에서 1 대1로 합의했다. 또 정당의 노선은 중도개혁노선을 지향하는 것으로 정립했다.

또한, 후보단일화는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와 민주당 이인제 후보가 각각 2~3차례의 TV 토론을 갖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정하기로 했다.

통합민주당의 대표에는 양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대통합신당 오충일 대표와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맡기로 했다. 양당은 또 첫번째 전당대회를 내년 4월로 예정된 18대 총선 이후 2

개월안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 당은 당초 지난 주말 동안 통합의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11일 통합 선언을 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의 내부 논의 절차 문제와 민주당 측의 일부 문제 제기에 따라 12일 최종 합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통합신당의 오충일 대표와 정동영 후보, 민주당 박상천 대표와 이인제 후보는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4자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 및 통합에 대한 최종 합의의 도출에 나선다.

양당이 통합의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이날 회동에서는 통합과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합신당과 민주당은 이날 회동에서 최종적인 합의를 이루고 이를 근거로 당내 추진 절차를 거쳐 빠르게 12일 정당 통합 및 후보단일화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직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분열됐던 민주·개혁 세력은 4년여 만에 다시 통합을 이루며 대선을 앞두고 단일대오를 형성할 전망이다.

그러나 양 당 일각에서는 당 대 당 통합에 대한 이견도 만만치 않아 상당한 진통과 함께 최악의 경우 양 당의 통합 시기도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합신당 핵심 관계자는 "양 당이 후보단일화와 통합에 대한 원칙에 합의를 이룸에 따라 이르면 12일 통합 합의가 이뤄지고 곧바로 공식적인 통합 선언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상경 저지 몸싸움 11일 오전 기아차 노조원과 남측권 학생 등 1천400여명이 서울에서 열린 '2007 범국민 행동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을 시도하던 중 광주시 서구 무진로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7면>

또 물류대란 오나...

철도노조·화물연대 16일 공동파업 강행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파업·운송 거부 돌입 시점(16일)이 임박하면서 파업으로 여객·물류의 수송이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정부와 사측은 노조측이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인 파업에 들어갈 경우 강경 대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으나 노조측은 해고자 복직과 유류세 인하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사, 노정간 정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공조해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열차운행률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급락하고 전국 항만과 내륙컨테이너기지의 수출입 화물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여객과 물류

수송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철도공사)에 따르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화물열차 운행률이 평상시 대비 약 14.7%, 여객열차는 23%, 수도권 지하철(전동열차)은 51.9%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열차 평균 운행률이 30%대로 급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화물연대의 경우 소속 조합원이 전체 화물차주 32만명의 3.1~4.3% 수준인 1만~1만4천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제로 운송 거부에 들어가면 비조합원들도 상당수 동참할 것으로 보여 전국 항만과 컨테이너기지의 화물 반출입 물동량이 급감, 물류대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파업 자체를 촉구하는 담화문 등을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으로 파업 돌입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노조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은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국내외의 지적으로 인해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인 직권중재를 발의삼아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라며 파업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재정부,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긴급 노정교섭을 국무총리실에 제안하는 등 물밑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나 핵심 쟁점들에 대한 노사간, 노정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전남 4인가구 사라져간다

2030년엔 1~2인 가구 70% 육박

저출산 및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오는 2030년에는 전남지역의 1~2인 가구 비중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전남은 2030년까지 전체 가구 수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고령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2030 장래가구추계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전남의 가구 수는 56만3천가구에 예측됐다. 이는 올해 66만4천가구에 비해 10만1천가구(15.2%)가 줄어든 것이다.

특히 전남은 향후 1~2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됐다. 2030년 전남의 1~2인 가구 수는 38만가구에 달한다. 이는 전체의 67.5% 수준으로, 혼자 살거나 부부만 사는 가구가 전체의 3분의 2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독거' 가구

의 비중도 전체의 29.6%(16만7천가구)나 된다.

반면 2030년 전남의 4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의 11.4%(6만4천가구)까지 떨어지게 되며, 3인 가구와 5인 가구는 각각 14.7%(8만3천가구), 5.3%(3만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남은 향후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 전남의 고령가구는 25만6천가구로, 전체의 45.5%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올해(31.8%)보다 무려 13.7%나 높은 것이다.

광주지역의 전체가구수는 현재 47만3천가구에서 2030년에는 54만2천가구로 14.6%(6만9천가구)가 늘어난다. 독신가구는 현재 19.2%(9만1천가구)에서 2030년 23.0%(12만4천가구)로, 2인 가구는 현재 20.4%(9만6천가구)에서 2030년 25.9%(14만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社告

2008 대입 논술 무료 설명회

조성식 선생 초청~20일 광주 KT빌딩 대강당

더욱 비중이 높아진 2008 대입 논술고사에 대해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립니다.

광주일보사는 광주대성학원과 공동으로 서울 초암 논술아카데미 조성식 임시전략팀장(사진)을 초청, 대입논술 무료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대입 논술지도의 최강자로 불리는 최성식 선생은 주요대학 논술고사의 최신경향과 대비요령, 고득점 단안작성법을 조목조목 짚어드릴 것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 일 시 : 11월 20일(화) 오후2시
- 장 소 : 광주 KT 빌딩 3층 대강당(동구청 옆)
- 강 사 : 조성식 서울 초암논술아카데미 팀장
- 대 상 : 수험생·학부모·각 고교 진학실장·논술교사
- 문 의 : 광주 대성학원(www.kjdaesung.com) ☎062-227-0055~7

2008 정시 논술 전략자료집 무료 배부

光州日報社·광주대성학원·초암논술아카데미

유일한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m.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57
"아스트릭스" 국민보건 캠페인
노혈관의 혈전
신혈관의 혈전
혈전, 혈관의 적!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스트릭스